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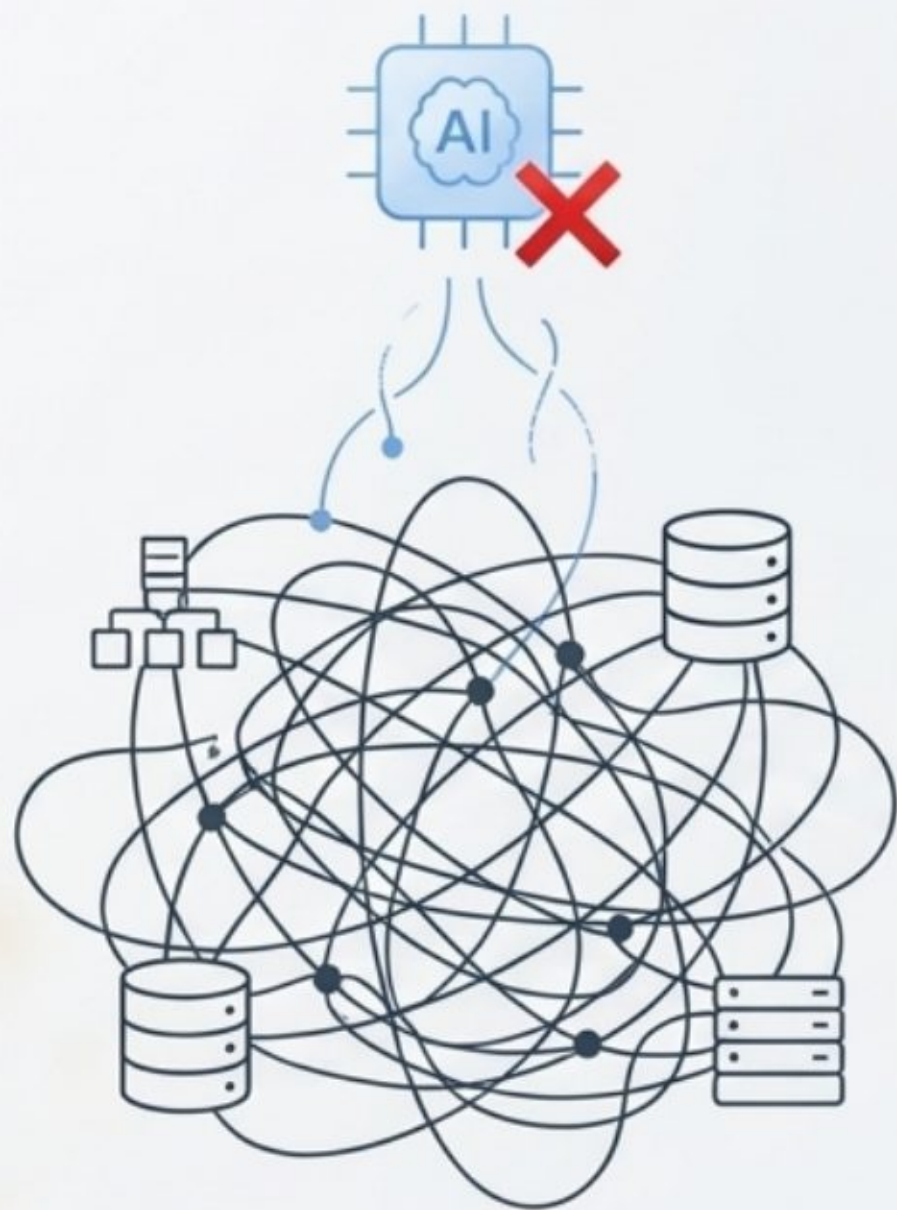
Ontologic: 차세대 자율형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데이터를 넘어 비즈니스 지혜를
연결하는 Process GPT

더 이상 데이터를 찾고 해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파편화된 사일로를 하나의 지능형 신경망으로 융합하여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AI 엔터프라이즈의 시작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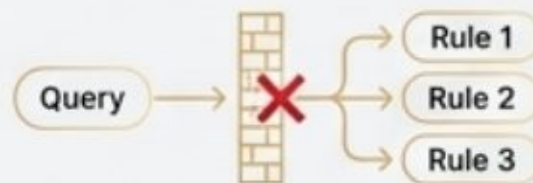
단순 문서 검색(RAG)의 환상, 복잡한 비즈니스 앞에서의 구조적 한계



비즈니스 규칙 자동 반영 미흡



단순 Top-k 검색은 가입 규칙, 보상 기준, 공정 인과관계 등 다차원적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멀티-홉(Multi-hop) 추론에 실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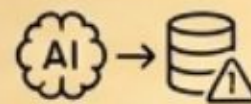
이기종 데이터 통합 부재



구조화 데이터(DB), 비정형 텍스트(약관/매뉴얼), 레거시 코드(SQL) 간의 논리적 단절로 전체 비즈니스 맥락(Context)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AI의 직접 SQL 작성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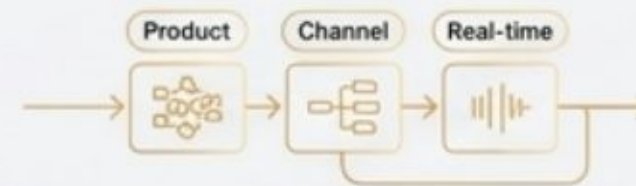
AI가 통제 없이 DB에 접근하여 SQL을 생성하면 환각(Hallucination) 리스크와 심각한 보안 및 조직 정책 위반을 초래합니다.



단일 질의(One-shot Query)의 한계



상품, 채널, 실시간 장애를 아우르는 복잡한 분석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단발성 질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의 열쇠: '물리적 데이터 통합'에서 '의미적 지식(Ontology) 통합'으로



물리적 한계 극복

데이터를 강제로 복제하거나 이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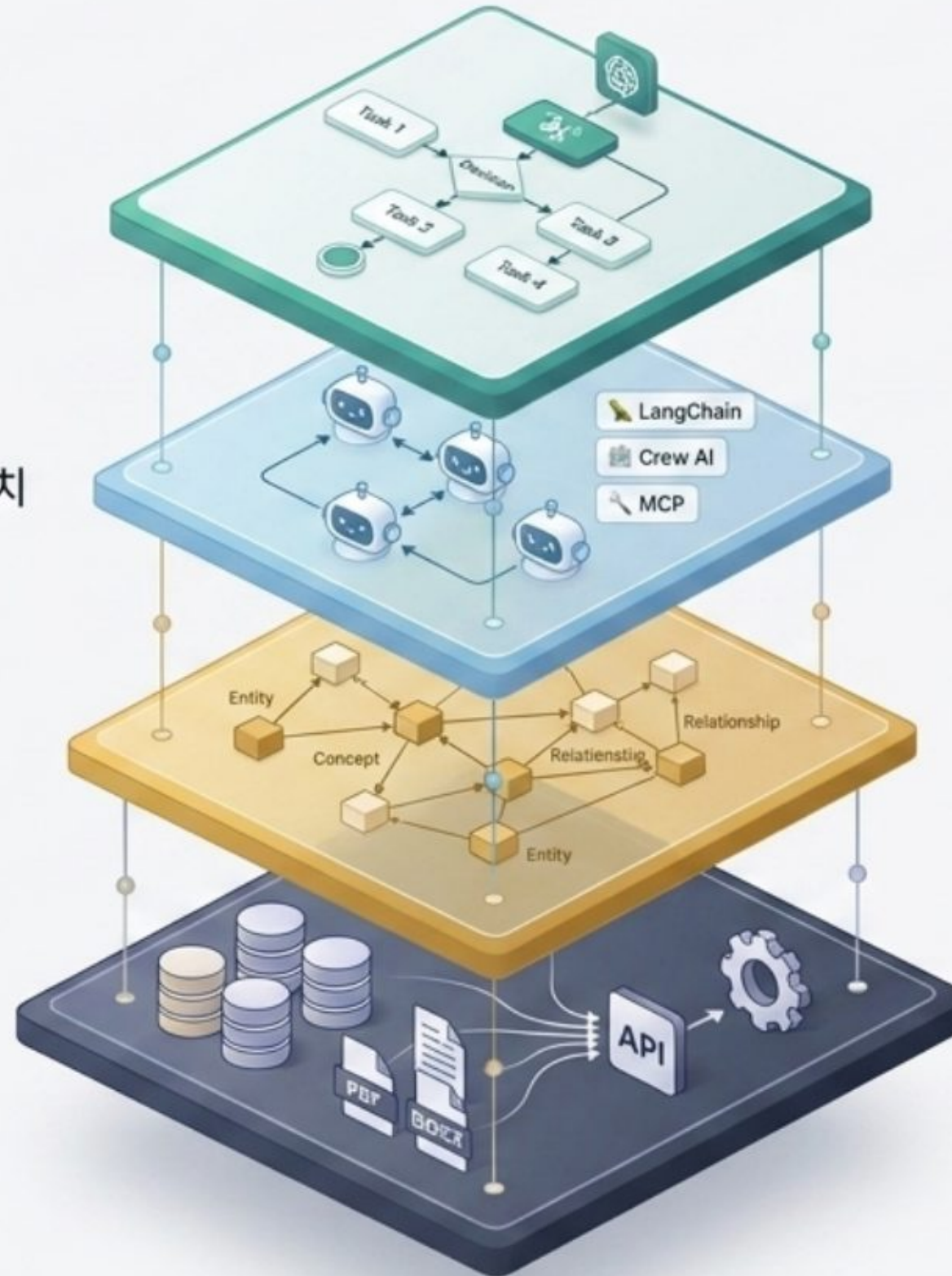
비즈니스 맥락 부여

생산량, 손해율, 장애율과 같이 인간과 비즈니스가 이해하는 표준화된 지식 메모리로 변환합니다.

레거시의 부활

낡은 코드(PL/SQL, Java)와 문서에 숨겨진 비즈니스 로직을 추출하여 살아있는 은톨로지 자산으로 재구성합니다.

Process GPT: 자율형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4단계 통합 아키텍처



Layer 3. Agent Layer (다중 프레임워크)

LangChain, Crew AI 등을 활용한 멀티 에이전트 배치 및 MCP, Claude Skills를 통한 외부 도구 완벽 연동.

Layer 4. Process Layer (에이전틱 BPM)

BPMN 엔진을 통해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 프로세스(승인, 메일 발송, DB 업데이트)에 직접 개입하고 자율 실행.

Layer 2. Ontology Layer (의미적 지식 기반)

Neo4j 기반. AI가 완벽히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공통 지식 계층(Entity, Concept, Relationship) 제공.

Layer 1. Data Layer (데이터 패브릭)

사일로화된 정형/비정형 데이터 및 API의 물리적 이동 없는 논리적 단일 통합.

설명 가능한 AI의 AI의 심장: 5계층 온톨로지 비즈니스 구조화



Layer 1. KPI (핵심 성과지표)

- 비즈니스 최상위 지표
(예: 월간 순이익, 클레임 비율, OEE)

Layer 2. Measure (측도)

- KPI 계산을 위한 단위 지표
(예: 총매출, 총클레임액, 생산량)

Layer 3. Driver (드라이버)

- 측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
(예: 위험등급, 설비 온도, 트래픽)

Layer 4. Process (프로세스)

- 변수를 통제하거나 생성하는 로직
(예: 보상료 산정 프로세스, 조립 공정)

Layer 5. Resource (리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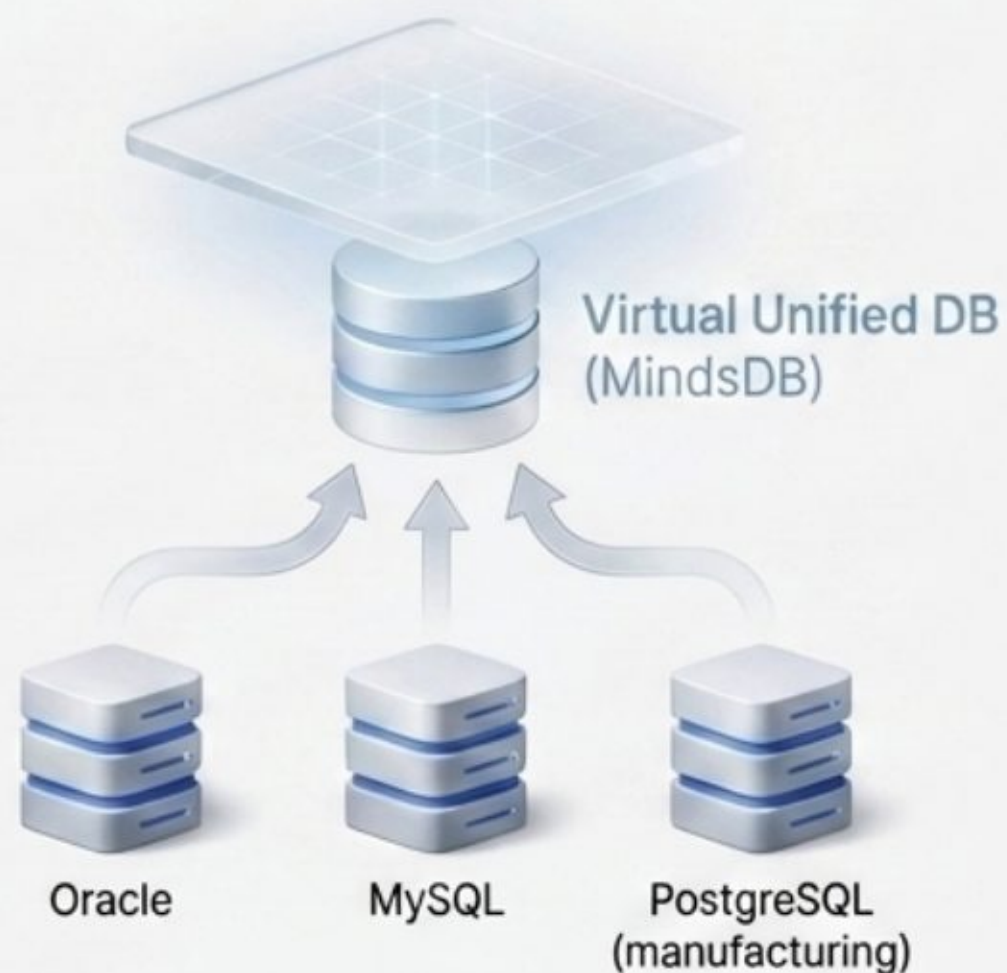
- 최하단 데이터 물리 자산
(예: DB 테이블, 컬럼, 저장프로시저)

양방향 추적 및 영향도 분석 (Blast Radius)

결과(KPI)에서
원인(Resource)을
역추적하거나,
특정 테이블 스키마 변경이
KPI에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완벽히 정량화합니다.

끊김 없는 연결: Zero-ETL 데이터 패브릭과 범용 AI 연결 표준(MCP)

Data Fabric (MindsDB) - 가상화된 단일 진실 공급원



- 물리적 데이터 이관(Migration) 0%.
- 이기종 RDBMS, NoSQL, API를 가상의 단일 DB 계층으로 감싸, 복잡한 조인(Join) 쿼리를 단일 테이블처럼 즉시 처리합니다.

MCP Standard - AI를 위한 USB-C 포트



- Anthropic이 개발한 개방형 프로토콜 탑재.
- 사내 시스템(금융 계정계, 통신 OSS)과 다양한 AI 에이전트(Claude, Cursor) 간의 표준화된 통신 규격.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고 플러그앤플레이(Plug & Play) 방식으로 즉시 연동하며 철저한 보안 통제(RBAC)를 강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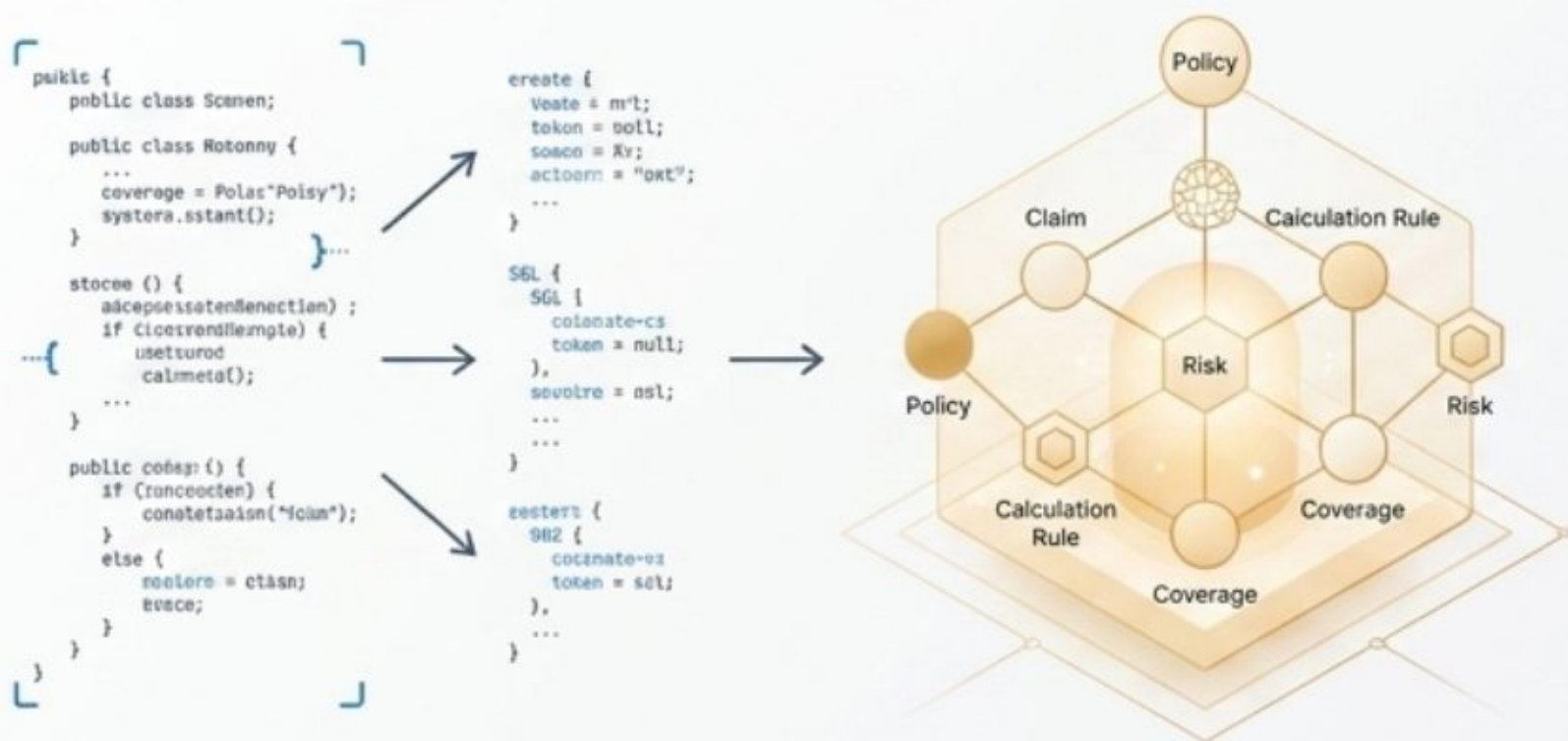
도메인을 초월하는 지능: 크로스 인더스트리 온톨로지 매핑

	Finance (금융) 	Manufacturing (제조) 	Telco (통신) 
[KPI]	손해율, 순이익	수율, OEE(설비종합효율)	네트워크 가동률, CS 불만율
[Process]	언더라이팅, 클레임 보상	원자재 공급, 조립 공정, 품질 검사	트래픽 할당, 인시던트 티켓팅, 장애 복구
[Resource]	약관 PDF, ClaimLogic.java, TB_CLAIM	센서 데이터, PRC_CALC_DAILY.sql, MES DB	BSS/OSS 로그, CRM DB, 네트워크 장비 API

산업별 용어와 프로세스는 달라도,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온톨로지의 수학적 본질은 동일합니다.

시나리오 1. 금융: 블랙박스화된 레거시의 지식 자산화 및 심사 자동화

Legacy Modernization



레거시의 부활 (Legacy Modernization): AST 파싱을 통해 수십 년간 누적된 복잡한 약관과 보상 산식(PL/SQL, Java)을 '비즈니스 룰 노드'로 자동 추출합니다.

Real-time Orche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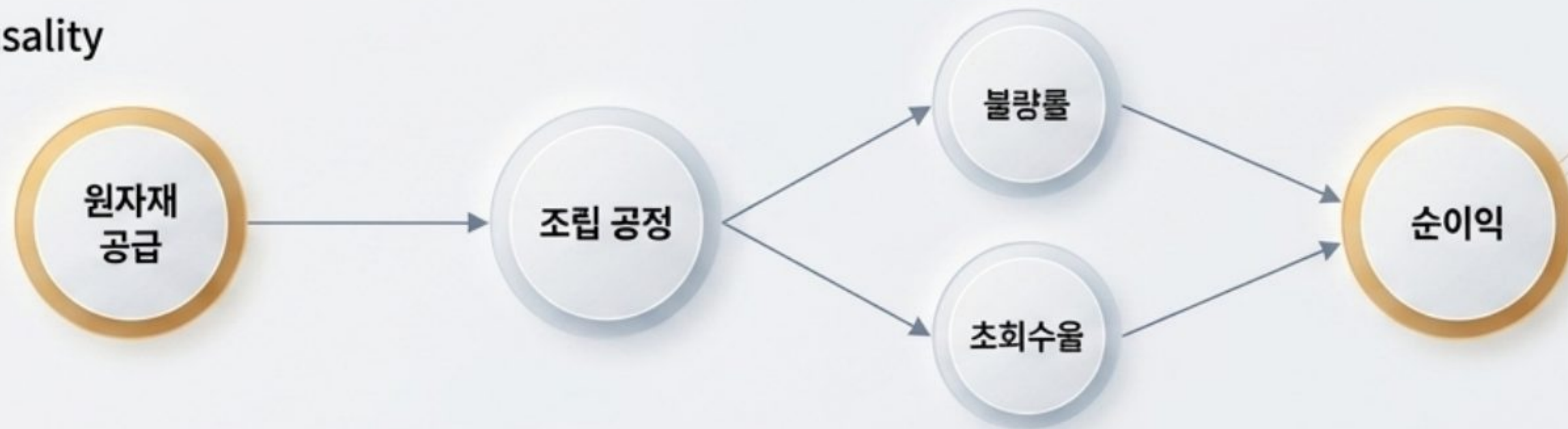
실시간 오케스트레이션: 고객의 클레임 접수 시, FNOL 이벤트 스트림과 외부 위험 지표를 AI가 온톨로지 기반으로 탐색하여 60초 내에 1차 심사를 자율 완료합니다.



정밀 영향도 분석: 특정 특약 조항 변경 시, 시스템의 어느 테이블과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지 100% 누락 없이 다단계로 추적하여 휴먼 에러를 방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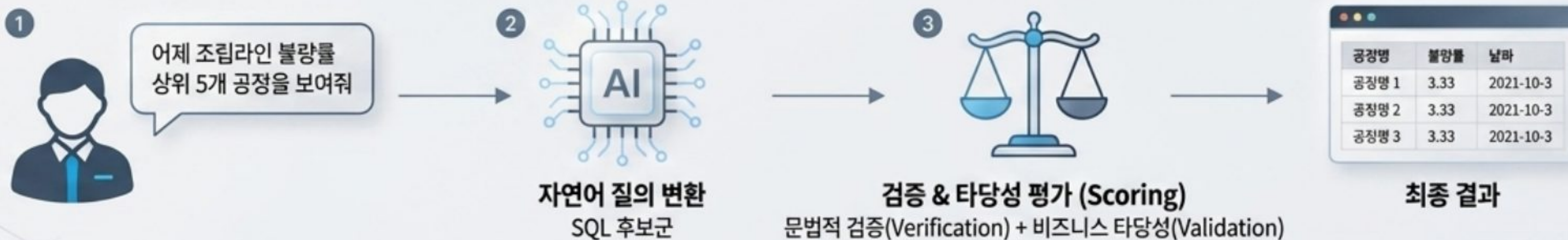
시나리오 2. 제조: 파편화된 공정 데이터의 맥락화 및 자연어 시뮬레이션

Process Caus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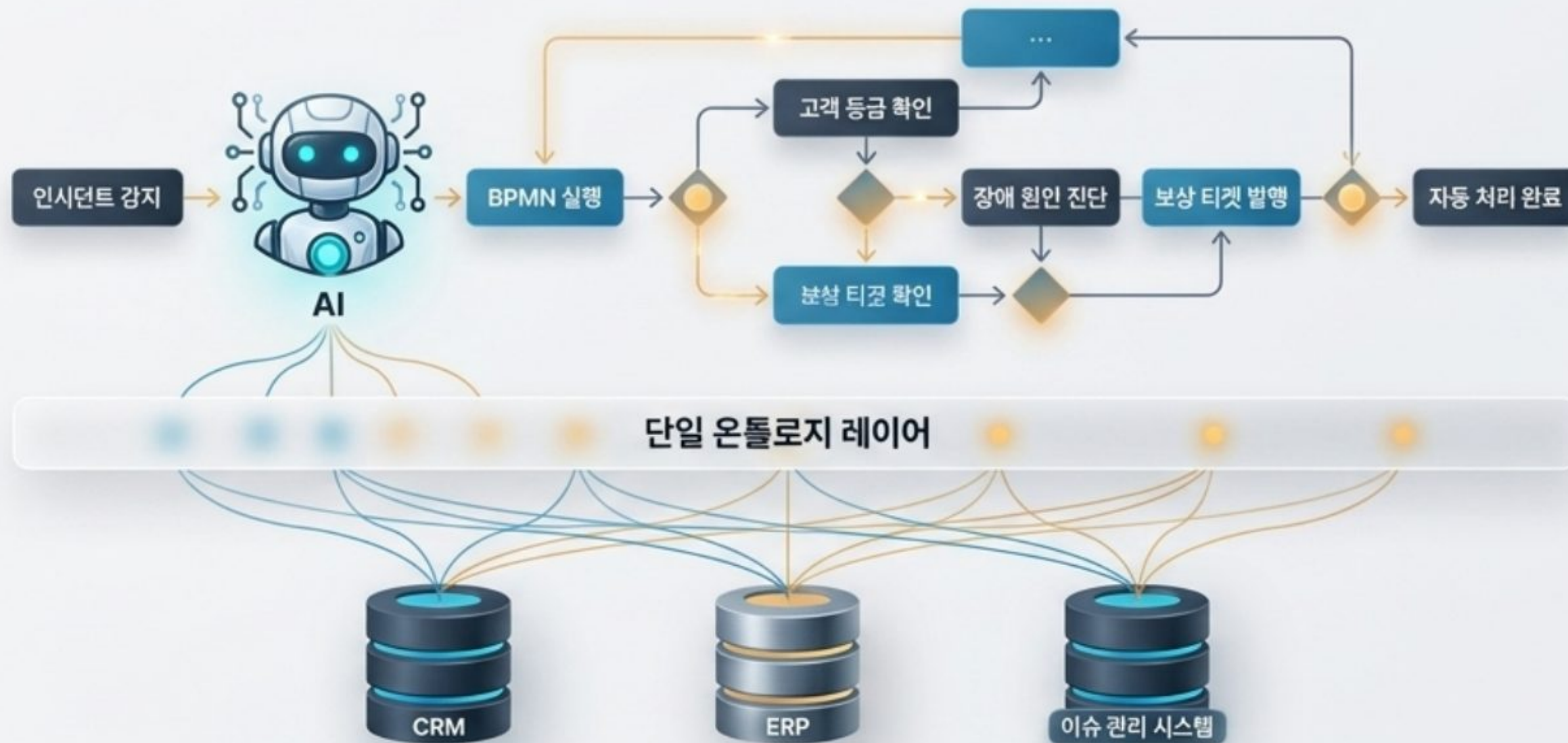
공정 인과관계 구조화: 숫자를 보기 전, '순이익'이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립 공정, 초회수율, 안전재고 등의 상호작용을 온톨로지 뇌(Brain)에 이식합니다.

Text-to-SQL Pipeline



지능형 Text-to-SQL: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온톨로지 맥락을 기반으로 쿼리의 문법적/비즈니스적 타당성을 스스로 채점(Scoring)하고 완벽히 검증된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시나리오 3. 통신: 사일로화된 시스템 통합 및 자율형 인시던트 오케스트레이션



사일로 파괴

철저히 분리되어 있던 CRM(고객정보), ERP(자원관리), BSS/OSS(망 운영) 시스템을 단일 데이터 패브릭과 온톨로지 레이어로 결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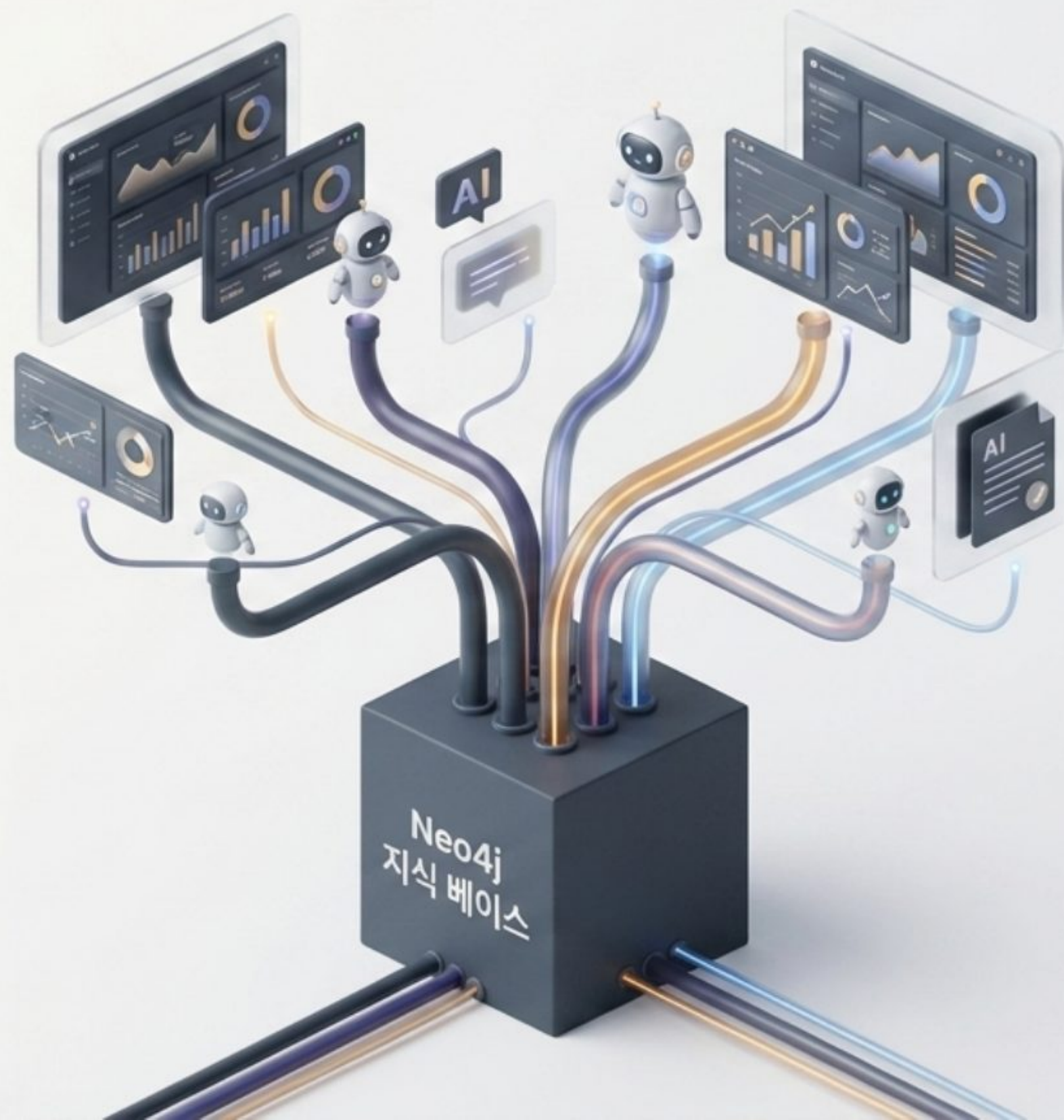
자율형 에이전틱 BPM

네트워크 인시던트 발생 시, 다중 AI 에이전트가 사전에 정의된 BPMN 비즈니스 룰을 통과하며 고객 등급 확인 -> 장애 원인 진단 -> 보상 티켓 발행까지의 전 과정을 인간의 개입 없이 일괄 자동 처리합니다.

즉각적인 밸류 생성: 지식을 레버리지한 애플리케이션 무한 확장

Cypher API 기반 접근

축적된 지식망에 직접적이고
표준화된 API 인터페이스 제공.



App & Agent 제너레이션

한 번 구축된 온톨로지 자산을
재활용하여, 별도의 하드코딩
없이도 목적에 맞는 경영진용
실시간 대시보드, 부서별 특화
분석 에이전트, 규제 대응 자동화
문서를 무한정 신속하게
찍어냅니다.

레거시의 무덤에서 자율형 AI 엔터프라이즈로의 진화

[레거시] Before: 현재 상태 (As-Is)

사일로화된 무덤 속의 데이터와 프로세스



- [방치된 자산] 담당자 퇴사 시 영원히 블랙박스로 남는 레거시 코드와 수동 문서.



- [단편적 대응] 사후 보고에 의존하는 낡은 모니터링 체계와 인간 의존적 디버깅.



- [단절된 도구] 시스템 간 단절로 인해 하나의 업무를 위해 수십 번의 수작업 인터페이스 필요.



[온톨로직] After: 미래 상태 (To-Be)

AI 기반 자율형 엔터프라이즈로의 전환



- [지식 자산화] 레거시를 AI가 100% 이해하고 설명 가능한 시맨틱 온톨로지 자산으로 변환.



- [선제적 예측 방어] What-If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기반 백테스팅을 통한 미래 리스크 사전 차단.



- [End-to-End 자율 실행]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룰을 자율적으로 통과하는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

리스크 없는 점진적 진화: Ontologic 도입 로드맵





완결된 데이터 운영체제(Data OS),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흩어진 데이터를 찾는 데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금융의 복잡한 규정, 제조의 치밀한 공정, 통신의 방대한 장애 인과관계까지. Ontologic과 함께, 데이터가 스스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진정한 지능형 엔터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